



#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제14권 719호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2023년09월17일(가해)

4040 Nelthorpe St. Victoria BC V8X 2A1

## 2023년 <사목목표>-행복의 해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신명 30,15)]

주일 미사 : 빅토리아: 일요일 3PM  
 나나이모: 토요일 4PM  
 평일 미사 : 수요일 8:00PM(빅-성당)  
 목요일 10:30AM(빅-성당)  
 고해 성사 : 미사 30분전

주임신부 : 유영진 로베르토 ☎ 778-966-3689  
 카카오톡 ID-ryu0758  
 사목회장 : 변영호 리처드 ☎ 250-893-3355  
 성당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saem>  
 주소 : 6234 Spartan Rd, Nanaimo, BC V9T 2N9

## 2023 년 9 월 17 일 [(녹) 연중 제 24 주일]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 <전례 순서>

✧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 **입당 성가 287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3,1-9

✧ **화답송**   
 (후렴)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39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알 렐 루 야 알 - 렐 루 야 - 알 렐 - 루 - 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9,23-26

✧ **봉헌 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 **성체성가 166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286 (순교자의 믿음)**

## ※ 오늘의 묵상

오늘 우리는 103 위 순교 성인을 비롯하여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는 대축일을 지냅니다. 많은 분이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탄생'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죽음을 앞둔 순교자들이 보여 준 기개와 의연한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때를 오히려 영광과 축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김대건 신부님의 참수 장면에서,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는 가운데 천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늘 나라의 행복을 노래하던 신부님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연하여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런 용기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영화를 보는 내내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진정한 '목숨', 곧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현세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자의 목숨이 후자의 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이 영원한 목숨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평화를 누리고,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인들처럼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제1독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얻게 될 구원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러하였듯이, 확신에 찬 신앙인은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제2독서). (정천 사도 요한 신부)

### ▶ 기도문 안내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li> <li>●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li> <li>○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li> <li>●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li> <li>○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li> <li>●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li> <li>●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li> <li>○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li> <li>●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li> <li>○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li> <li>●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li> </ul> |
|---|---|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반주
9월 17일 한국순교자 대축일	빅토리아	이석태 요셉	변영호 리처드		김건호 데오필로
	나나이모	테레사 하트	김미나 사라	김정우, 김라엘	이유빈 스텔라
9월 24일 연중 제25주일	빅토리아	유현자 글라라	서승희 안젤라		김건호 데오필로
	나나이모	오재문 제노비오	김옥희 가브리엘라	박지성, 고예은	이유빈 스텔라

▶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신청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성인세례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유아세례-수시 접수  
▶ 성인세례식-수시 접수  
신청서 접수: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나나이모-김미나 사라

## ▶ 2024년 본당 달력 광고 및 후보 광고

2024년 본당 달력 제작을 위해  
달력 및 후보 광고를 신청 받습니다. (광고비-\$ 200)

## ▶ 한가위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 신청

나나이모-김미나 사라 사무장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전례부장

## ▶ 주일 학교-매주 주일 오후 2시(Parish hall)

### ▶ 주일학교 교리 교사 모집.

주일 학교를 함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 ▶ 첫 영성체 교리-매주 주일 오후 1시(Parish hall)

김하정(로사), 김소정(안젤라), 김재휘(마티아)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성당 부속 건물 사용 안내

Pope John hall-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없음.  
Parish hall-11월 1일 로컬 성당 신부님 부임 후 사용 여부 결정

## ▶ 식품 판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과 함께 식품 세일합니다.  
막장용 메주가루 1kg: \$50, 청국장 (백태분말) 1kg: \$65  
청국장 (서리태분말) 1kg: \$90, 청국장 (찌개용): \$50  
국간장 900ml: \$25, 서리태 국간장 900ml: \$50  
신청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나나이모-정영애 아녜스

## ▶ 전례 봉사자 모집

미사 전례가 하느님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 대전에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집합니다.

\*전례봉사 및 독서 - 강보녀 모니카 전례부장  
\*성가대, 반주 봉사 등 - 단장 김주자 카타리나  
\*남녀노소, 경력, 무관 합니다

## ▶ 레지오 회합

천사들의 모후 Pr-매주 월요일 8PM  
파티마의 모후 Pr-매주 화요일 10:00AM

## ▶ 잊지 마세요!!!

-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후 9시 주모경 바치기  
(주모경을 바친 후에 다음의 기도를 바쳐주세요.)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우리들의 정성 (2023년 09월 10일)

나나이모 봉헌금	\$ 285
나나이모 교무금(세대)	\$
빅토리아 봉헌금	\$ 395
빅토리아 교무금(1세대)	\$ 400
봉헌금 소계	\$ 1,080
감사 헌금-유현자	\$ 500
매일 미사-	\$ 65
달력(후보) 광고-김시나	\$ 100
합 계	\$ 1,680

본당 e-transfer 계정 안내

[koreancommunity@rcdvictoria.org](mailto: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 ▶ 함께 기도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본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100만단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빅토리아 한인공동체와 빅토리아 교구의 발전과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목주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 637,199

이번 주 : 1,990 현재 : 639,189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실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하였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된 외국 교회에 견주면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은 충효를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다. 그 결과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주교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신해 박해(1791년)를 시작으로 병인박해(1866년)에 이르기까지 일 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위를 시성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9월 26일에 지냈던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빅토리아**  
 교우 Business 안내

**HARBORD**  
 INSURANCE  
 자동차 / 주택 / 상업  
 / 여행자 보험  
 문창주 에릭  
 ericm@harbordinsurance.com  
 150-805 Cloverdale, Victoria  
 250-889-5650  
 harbordinsurance.com

 **PRIMERICA**  
 RESP / RRSP / TFSA 펀드  
 생명, 연금, 여행자 보험  
 변영호 리처드  
 www.primerica.com/richardbyeon  
 250-893-3355

 **Acupuncture & Massage Clinic**  
 침, 부항,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자동차 사고 및 각종 통증  
 RA.c, JJ Kim 250-884-8182  
 발마사지 Kevin 250-884-6462  
 2043 Oak Bay Ave.

  
 스시 아일랜드  
**Japanese restaurant**  
 사시미. 롤. 우동. 라멘  
 박성배, 정혜숙 크리스티나  
 #105-1633 hillside ave victoria  
 778-433-8488

**치킨 649**  
  
**CHICKEN 649**  
 Korean Fried Chicken  
 심환규 가브리엘, 김희진 가브리엘라  
 2224 Quadra St, Victoria  
 250-590-6491

**WINKS MARKET**  
**한국식품점**  
 현대해운 / CJ 항공 택배  
 이동석 안토니오  
 250-885-9497  
 250-360-2838

**빅토리아**  
**유현자 부동산**  
 밴쿠버 아일랜드 모든지역  
 (집, 비즈니스, 상가건물)  
 유현자 글라라  
 YouTube: cuvictoria24  
 250-858-6775

**SQUEAKY'S LAUNDROMAT**  
  
 박찬일 스테파노  
 3601 Shelbourne St.  
 Victoria, BC  
 250-721-2420  
 250-514-1831 (Cell)  
 squeakyslaundromat@gmail.com  
 www.squeakyslaundromat.com

**가드닝**  
**집수리**  
 개인주택 레노베이션 전문  
 이석태 요셉  
 250-889-2500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나나이모**  
 교우 Business 안내

**Umai Sushi**  
**일식 레스토랑**  
 이효열 오틀리아  
 Nanaimo North Town Centre  
 4575 Uplands Dr, Nanaimo  
 250-585-8900 (나나이모)

**Nana Sushi**  
 스시, 롤, 라멘  
 김시나 드보라, 김시영 아네스,  
 김대우 시몬  
 14 Victoria Crescent, Nanaimo  
 250-591-0755 (나나이모)

**SERIOUS COFFEE**  
  
 이순재 요셉  
 이유빈 스티라  
 Vancouver Island conference center (VICC)  
 #300-60 Commercial st. Nanaimo  
 250-591-1065

이 광고란은 여러분의 도네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사라, 604-219-5113